

꽃이 굽이치는 자리

김승희
시인

봄은 봄이고
저절로 와야 봄이다
봄꽃이 피어도
저절로 피어야 꽃이다

아무도 없는 마당에 흥매가 저절로 만발했다
저절로 극치에 닿았는데 여기서 무슨 의미론을 찾겠는가?
피고 지는 것이 저절로 되어야 극치에 가는구나

꽃이 피면 바람의 세계가 저절로 열리는데
아픔 없이 죽음도 저절로 왔다 갔으면 좋겠다
복숭아꽃 살구꽃이 저절로 병글어졌다 떨어지듯이
아프지 말고 살아라!
아프지 말고 죽어라!

어디까지 아파야 더 아프지 않을 수 있을까
저절로 나올 때까지 아파야 그것이 봄이다